

# “산업화·정보화 이은 세 번째 도약 준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협 필요”  
주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화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강성노

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보다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라. 대통령의 목이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빛과 독촉뿐만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나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례 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회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 민주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기득권 깨기 집중”

위성정당 방지방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는 올 연말을 목표로 여야 합의를 통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기득권 깨기에 집중해 논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중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교체 추진위가 구체적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새로 설치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혁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8월까지(법안을) 제안하고, 9-11월 의원들과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

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주요 내용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 기득권 깨기, 승자독식 철폐를 기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A안, B안 정도라도 최소로 만들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차별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방승인 김여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정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비이재명’ 당권 주자들 단일화 수면위

이 측 “비전 경쟁은 않고 한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권쟁을 저지하기 위한 비이재명 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든 본선에서 단일화하기로 미리 약속해두자는 공식 제안이 나오면서 ‘8·28 전 당대회’ 판이 술렁이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제외한 7명 후보끼리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했다.

그는 “누가 본선에 진출해도 1명의 후보로 단일화하고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

자”고 말했다.

이 고문을 일찌감치 ‘공공의 적’으로 못 박고 세를 규합하지는 것으로, 반명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컷오프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사전 결의’ 제안에 나머지 후보들은 동상이몽 분위기다.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강도’는 물론 단일화 ‘시점’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97그룹 주자 4인방(강병원·강훈식·박주민·박용진) 내부에서조차 온도 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재선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단일화가 논의되려면 가차나 당의 혁

신 방향 등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한다”며 ‘비이재명 단일화’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고문은 우리 당의 혁신 주체가 아니라 쇠신 대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계 주자인 설훈 의원은 “이재명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컷오프 전이라도 단일화 약속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자들 간 이견에 ‘단일화 약속’ 공동선언은 사실상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차기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비전 경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공리만 골몰하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응했다. /연합뉴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